

2013 유럽경제학회 참관기

김인철 (한국경제학회 회장)

스웨덴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고텐버그(Gothenburg)에서 제28차 유럽경제학회 연차총회(EEA) 및 국제학술대회와 제67차 계량경제학회 유럽총회(ESEM)가 8월 25일부터 30일까지 동시에 진행됐다. 이 두 큰 학술대회를 고텐버그 대학이 일사분란하게 진행했으며, 2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참가했다. 고텐버그 낮 기온은 섭씨 25-27도로 선선했으며 이번 학회 기간 동안에 화창한 날씨가 계속돼 사람들의 표정이 매우 밝았다.

스웨덴의 총 인구는 800만 정도로 국토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다. 고텐버그 주민은 50만 정도인데, 낮에도 대학주변 거리는 한산하다. 그러나 학교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다양한 노선의 버스와 전차가 자주 오가고 있어서 대중교통수단이 매우 편하게 돼 있다.

유럽경제학회장은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화폐금융대학원의 매뉴엘 아레야노(Manuel Arellano) 교수이며, 계량경제학회장은 2000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시카고 대학의 제임스 Heckman 교수이다. 이번 세션 중에서 특별히 시선을 끈 것은 국제거시경제학(international macroeconomics) 세션, 가족경제학(family economics) 세션, 그리고 노동·거시경제학(labor and macroeconomics) 세션이었다.

이번 행사에서 국제거시경제학 세션은 사람들의 특별한 관심을 끌었다. 이번 학회의 주최 측은 국제금융(international finance), 화폐경제학(monetary economics), 기업재무(corporate finance) 등의 전통적인 주제를 위한 독자적 세션에 덧붙여 국제거시경제학 세션을 새로 만들어서 적지 않은 수의 논문을 선보였다.

일반적으로 글로벌 경제의 상호의존성,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이, 국제통화제도의 개혁,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환율제도, 글로벌 불균형과 디레버리징(투자축소), 유로존 위기, 한국의 근혜노믹스, 일본의 아베노믹스, 중국의 리커노믹스 등이 국제거시경제학 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가족경제학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경제학계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이다. 21세기를 맞아 신흥국가와 고소득국가는 출산율의 급감에 따라 인구성장이 급격히 둔화되고 노동인력이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을 맞게 됐다. 이런 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대두될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카고 대학의 베커 교수를 위시하여 여러 학자들이 가족경제이론을 발전시켰다.

가족경제이론에 따르면, 부부 두 사람이 자신의 평생효용을 최대화하는 관점에서 부부의 최적 평생소비, 최적 자녀수, 그리고 자식에게 남겨주는 최적 재산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부부의 임금이 오르면 소득효과에 따라 자녀 수요가 증가하여 여성의 출산율이 상승한다. 그러나 여성의 임금 상승률이 충분이 오르면 여성은 자신의 노동시간의 기회비용이 그만큼 높아지면서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의욕이 줄어든다. 결국 한 나라의 출산율과 자녀수는 부부의 통합소득과 부부가 집안에서 시간을 적절히 할애하고 어떻게 역할분담을 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필자는 이번 학회 참여를 통하여 노동공급과 거시경제학의 관계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됐다. 노동공급은 단기적으로는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게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경기변동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경기 침체기에는 여성의 임금이 낮기 때문에 차라리 가사(家事)를 선택함으로써 단기적으로 노동공급을 줄인다. 임금은 하락하고 노동공급은 감소함으로써 두 변수는 단기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반대로 움직인다. 예컨대 학교공부나 집안일이 싫어져서 직장을 택하는 젊은 여성이 많아지면 노동공급이 증가하고,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하락한다. 그래서 기업투자와 생산이 늘어나 경기가 활발해진다. 이렇듯 노동공급과 임금이 반대로 움직이는 상황을 놓고 국별, 시대별 실증분석을 통하여 노동시장의 변동원인을 규명할 수 있으며, 노동시장의 변화를 예측할 수도 있다

금융위기는 유럽학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어서 이에 관한 논문도 비교적 많이 발표된다. 유럽경제의 앞날은 이곳 학자들도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물론 IMF, EC(유럽 집행위원회), ECB(유럽중앙은행)가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 남유럽의 경제회복을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려면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세계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했으며 지금은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인 존 페이지(John Page)는 유럽경제에 관하여, 유럽경제의 선도국인 독일과 프랑스는 서서히 회복하고 있으

나 이태리는 여전히 힘들어 하고 있으며, 유럽전체가 회복하려면 아직도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계경제는 거의 한 지붕 밑에 있다. 거대 중국을 제외하고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는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어서 대규모 단기 투기자금이 수시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국의 경제구조가 약하든 강하든 관계없이 언제든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한국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물론 한국의 경상수지가 18개월째 흑자를 시현하고 있으나, 실제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고 있으며 초저출산과 빠른 고령화 때문에 실업률이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대기업은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길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경제의 성장둔화는 한국의 수출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으며,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는 한국의 외환 및 금융사정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경제의 대외환경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2013년 8월 30일 유럽경제학회에서 재회한 본 학회 김인철 학회장(성균관대)과 시카고대학 은사인 세계계량경제학회장 James J. Heckman 교수(2000년 노벨경제학상 수상).